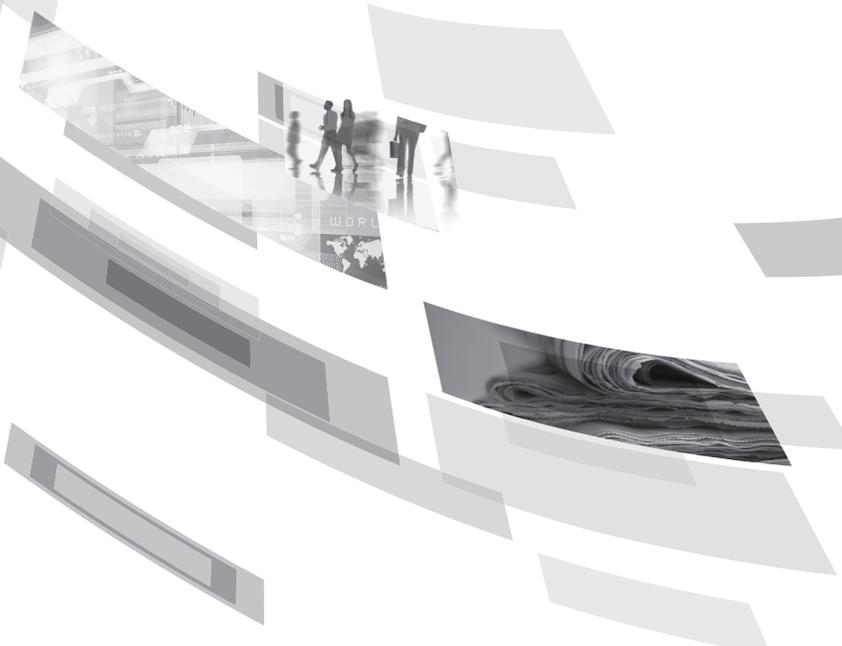


명예와 신용 존중



1. 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 2014-1122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朝鮮日報 2014년 4월 7일자 A11면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 비난/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 결혼/장인은 지방서 호텔 운영」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12년 국정감사 때 백선엽(94) 예비역 장군을 “민족 반역자”라고 비난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34·비례대표)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와 의원동산에서 Y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주례는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맡았고, 식장에 같은 당 김한길·안철수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 등 수백명이 참석했다.

신부 Y씨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P호텔 부사장이고, 장인이 이 호텔 사장이다. P호텔은 지하 1층, 지상 10층에 객실 111개를 갖춘 특2급 호텔로 중식당·일식당·연회홀·웨딩홀·커피숍 등을 갖췄다. 규모와 시설 수준은 광주 지역에서 서너 번째로 꼽힌다. 이 호텔은 지난 2000년 문을 열었으나 초창기 경영난을 겪다가 2003년 경매에 부쳐져 Y씨 소유가 됐다.

김 의원 장인의 동생이자 신부의 작은아버지는 한때 광주 지역 폭력 조직(국제PI파) 두목급으로 경찰·검찰의 관리 대상에 올랐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제PI파는 광주 지역의 양대 폭력 조직 중 하나로 경찰의 관리 대상 조직원만 250~3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 시절 범죄와

의 전쟁으로 조직 두목과 행동대장 등이 대거 검거되면서 대부분의 폭력 조직이 와해됐다. 동생 Y씨도 2000년대 이후 국제PJ와 조직원들과 점차 관계가 끊겨 현재 경찰이 관리하는 조폭 계보에는 '고문'으로 분류돼 있다. 그는 현재 광주에서 웨딩홀 등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씨의 지인들은 “호텔은 형 Y씨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생 Y씨는 이 호텔 소유 지분이나 경영 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7/2014040700127.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내용을 보도한 위 기사에서 신부 Y씨와 Y씨의 집안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기술했다.

기사는 신부 Y씨가 광주광역시에서 서너 번째로 꼽히는 호텔을 소유한 부사장이고 김 의원의 장인이 사장이라는 점에 덧붙여, 이 호텔이 111개의 객실과 중식당·일식당·연회홀·웨딩홀·커피숍 등을 갖춘 특2급 호텔이라고 자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또한 신부의 작은아버지가 한때 광주 지역 폭력조직(국제PJ과)의 두목급이었으며, 국제PJ과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광주 지역의 양대 폭력 조직 중 하나로 조직원이 250~3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는 등 신부 작은아버지의 폭력조직 관련 이력을 세세하게 전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도 『2012년 국정감사 때 백선엽(94) 예비역 장군을 “민족 반역자”라고 비난했던』이라며 결혼식과 아무 관련이 없는 국회 발언을 기사 첫 문장에 넣어 보도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 중 결혼이 드문 일이라는 점에서 김 의원의 결혼식은 뉴스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위 기사는 형식상으로는 신부 부친과 신부, 그들이 경영하는 호텔의 이름을 익명 처리했다고는 하나 『신부 Y씨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P호텔 부사장』 『P호

텔은 지하 1층, 지상 10층에 객실 111개를 갖춘 특2급 호텔』등으로 기술함으로써 사실상 광주시민은 물론 광주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라도 이들이 누구인지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결혼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신부 집안의 개인 정보를 노출시킨 것이다.

또 전혀 상관이 없는 신부 작은아버지의 과거 폭력조직 관련 사실을 더 부각시키고, 결혼식과 무관한 김 의원의 과거 발언까지 보도하고 이를 제목에서까지 언급한 점으로 보아 백선엽씨에 관한 김 의원의 발언 내용과 연관지어 김 의원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사는 김 의원과 관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23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청투데이 발행인 정 남 진

〈주문〉

충청투데이 2014년 4월 10일자 1면 「2011년 하나캐피탈 시절 저축銀 145억 원 부당 지원/하나은행장 '중징계' 촉각/17일 금융감독원 제재 방침/개인 사생활도 도마위 올라/사퇴압박 이어질까 지역 관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충청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

으로 보이면서 거취에 대한 문제가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번 성과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아 1년 연임이 확정된 김 행장이지만, 최근 언론으로부터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데다 개인 사생활까지 이슈가 되면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김 행장은 2011년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옛 미래저축은행에 145억 원을 부당지원했다가 6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금감원은 추가 조사까지 마친 상태로, 오는 17일 제재 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행장이 금감원 중징계를 받게 되면 금융기관 취업제한(3~5년) 등의 제재가 뒤따르는데 이는 사실상 금융권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최근 19세 연하의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갖가지 구설수에 오른 점도 김 행장의 거취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직 보수적 성향이 강한 금융권에서는 김 행장의 파격(?)적인 결혼식이 자칫 은행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행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더욱이 재임은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물론 금융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일부 성과를 거둔 수장을 그대로 내치기에 시기상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과 충남 등 지역에서는 김 행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하나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방은행 역할을 대신해왔던 터라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는 지역은행 역할 강화라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하나은행 수장 자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충청권에 대한 역할 강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만큼 지역을 잘 알고 이해력이 충분한 인사가 그 자리에 올라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하나은행이 은행장 인사를 단행한다면 이번 인사 결과를 통해 지방은행 역할을 자임한 하나은행의 진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것도 아닌데 퇴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매우 조심스럽지 않겠냐”면서 “지역 목소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전달될 필요도 있지만 인사는 회사 방침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우선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투데이의 위 기사에서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2011년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옛 미래저축은행에 145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60억여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행장의 거취에 대해 대전·충남 지역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는 김 행장이 얼마 전 19세 연하의 여성과 결혼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올해 58세인 김 행장은 지난 3월 22일 서울에서 39세 김 모씨와 결혼했다. 3년 전 부인과 사별한 김 행장은 지난 해 국제회의에서 통역과 의전을 맡았던 김 씨를 처음 만났고, 김 씨가 호감을 표시하면서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결혼식은 소수 인원만 초대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졌지만, 김 행장이 결혼식 3일 후 SNS에 결혼 사진을 올림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위 기사는 김 행장이 결혼과 관련해 갖가지 구설수에 올랐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금융권에서는 김 행장의 파격(?)적인 결혼식이 자칫 은행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사는 구설수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째서 은행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는지 등 김 행장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도한 데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위 기사는 또 하나은행이 대전·충청에서 사실상 지역은행 역할을 맡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은행장이 바뀐다면 『지역을 잘 알고 이해력이 충분한 인사가 그 자리에 올라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

다. 대전·충청 지역 출신이 차기 행장을 맡아야 한다는 희망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누가, 왜, 그 같은 주장을 하는 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다. 전국에 사업장을 둔 시중은행의 수장을 특정 지역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것부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도에 넘친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

김 행장이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금감원의 사전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은 위 기사보다 1주일 전 쯤에 대다수 언론에 보도됐는데도 충청투데이가 별달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도 않고 1면 톱으로 다룬 배경도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에 따라 주관적 의견이나 판단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5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2. 세계일보 발행인 조 한 규
3. 한국일보 발행인 고 낙 현

〈주문〉

서울신문 2014년 5월 3일자 3면 「“전양자씨, 구원파 창시자 차남과 재혼설”」 기사와 제목, 세계일보 5월 3일자 4면 「전양자 소환 임박… ‘유병언 비리’ 연예계로 불똥」 기사와 제목, 한국일보 5월 3일자 3면 「검찰, 세모 주요 계열사< 금수원·노른자쇼핑·국제영상> 대표 맡은 텔런트 전양자 곧 소환」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불똥이 연예계로 튀었다. 구원파 신도인 중견 텔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 씨에 대해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수사하면서 연예계 구원파 인사들의 면면과 비리 연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총본산 ‘금수원’ 대표인 전씨는 구원파 창시자인 고 권신찬 목사의 둘째 아들 오균(64)씨와 2009년쯤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 구원파 신도가 된 전씨는 1991년 ‘오대양사건’ 이후 한동안 연예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으며, 이후 유씨 일가와 밀착관계를 맺어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이사로도 활동했다. 현재 그가 출연 중인 MBC 일일드라마 ‘빛나는 로맨스’의 제작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하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혹이 확산되면서 전씨는 2일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다. (후략)』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03003002>>

(세계일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수사가 연예계로 확대되고 있다. 일단 첫 거론된 인물은 배우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다. 전씨는 일명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전씨를 일단 불러 조사한 뒤 관련 연예인이 더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 핵심 측근 전양자는 누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중 2차장검사)은 2일 전씨가 유 전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와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 올려놓았다. 전씨는 2009년 3월 국제영상과 노른자쇼핑 등 계열사 2곳의 이사에 취임했고, 지난해 3월

부터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구원과 종교의 총본산인 금수원의 대표이사까지 맡았다. 지난 3월부터는 유 전 회장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직도 겸하고 있다.

검찰은 국제영상이 시가 200억원대 건물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에서 20억원을 빌린 뒤 이 돈을 유 전 회장 일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전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들의 자금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전씨는 2009년 구원과 설립자이자 유 전 회장 장인인 권신찬 목사의 차남 오군(64)씨와 재혼하면서부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명의를 빌려주고 ‘바지사장’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한 인터넷매체와 인터뷰에서 “나는 잘못된 게 없다”며 “어떤 이유에서 수사 관련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마음을 달랜 후 (MBC드라마) ‘빛나는 로맨스’ 촬영 현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다른 매체와 인터뷰에서 “내가 어디 도망갈 사람 아니다”라며 “(검찰이 소환하면)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오대양 집단변사 사건’ 당시 배후로 구원파가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자 수년간 연예계를 떠나기도 했다. (후략)』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5/02/20140502003371.html?OutUrl=naver>>

(한국일보)= 『텔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사진)씨가 세모그룹 계열사의 대표를 맡으며 유병언(73) 전 회장 일가의 불법 경영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부터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근거지인 경기 안성의 금수원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2009년 유씨 일가의 계열사로 지목된 교회 홍보영상 판매회사 국제영상 및 농산물 판매회사 노른자쇼핑의 이사로 취임한 후 지난해에는 대표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로도 등재돼 있다. 국제영상과 노른자쇼핑은 영농조합과 부동산 매입을 통해 유

씨 일가의 재산 증식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의 핵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전씨가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만큼 회사의 자금집행 등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씨가 유씨 일가에 흘러 들어간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알고도 협조하거나 묵인했다면 횡령이나 배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유씨가 전씨의 명의만 빌려 와 대표로 등재시켰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전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볼 방침이다. 전씨는 이날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며 아무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1977년부터 구원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며, 1991년 구원파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당시 구원파 신도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전씨는 특히 구원파의 창시자인 고 권신찬 목사의 아들이자 유씨의 처남인 권오군(64)씨와 2009년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부인이자 권 목사의 딸인 권윤자(71)씨와 친자매처럼 지내왔다는 전씨가 혼인을 통해 유씨 일가로 합류한 셈이다.

유도 초단인 전씨는 2008년 서울시 유도홍보대사에 위촉되기도 했다. 전씨가 유도를 배우게 된 것도 유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금수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유씨의 지도 아래 교인들이 단체로 유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전씨 같은 유명 연예인의 인지도를 활용해 구원파 신도를 늘려 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후략)』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5/h2014050220560821950.ht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연예계의 구원파 신도 실태에 관한 보도이고, 세계일보와 한국일보 기사는 구원파 신도로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를 맡고 있는 텔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기사들은 전씨가 구원과 창시자인 고 권신찬 목사의 둘째 아들 오균(64)씨와 2009년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권오균씨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처남이니, 결국 전씨와 유씨가 인척관계일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제목에도 반영됐다. 서울신문은 기사의 큰 제목을 「“전양자씨, 구원과 창시자 차남과 재혼설”」로 달았고, 세계일보와 한국일보는 작은 제목을 각각 「구원과 창시자 며느리」, 「5년전 유씨 처남과 재혼」으로 붙였다. 세계일보는 기사와 함께 게재한 「텔런트 전양자(본명 김경숙)씨와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 관계」 제목의 그래픽에도 같은 내용을 넣었다.

전씨가 유 전 회장과 인척관계인지 여부는 전씨의 세모그룹 불법경영 개입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검찰 수사상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도 위 기사들은 전씨의 재혼 여부에 대해 ‘알려졌다’고만 기술했을 뿐, 당사자나 서류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검증 노력을 하지 않았다.

참고로 東亞日報는 전씨와의 통화 내용 등을 보도한 같은 날자 신문에서 전씨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재혼설에 대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나는 과거 이혼 후 지금까지 쪽 홀로 살아왔다”며 강력히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전씨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위 기사들이 언급한 전씨 재혼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씨가 유명 텔런트로 공인의 범주에 들고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긴 하지만 전씨에게도 보호받아 마땅할 사생활이 있고, 재혼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로 봐야 한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전씨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6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2.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3.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4. 한국일보 발행인 고 낙 현

〈주문〉

부산일보 2014년 4월 29일자 2면 「취임 후 ‘최대 위기’ 인식, 두드러진 민심 이반 달래기 수순」 제목의 기사의 사진, 경향신문 4월 30일자 3면 「“대통령님, 끝까지 현장에 있으셨어야죠” 유족들의 절규」 제목의 기사의 사진, 서울신문 5월 2일자 3면 「“마지막 한명까지”... 구호는 절규가 됐다」 제목의 기사의 사진, 한국일보 5월 2일자 1면 「침몰중인데 ‘화물량 축소’ 입맞추고 있었다」 제목의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부산일보 4월 29일자 2면



경향신문 4월 30일자 3면



서울신문 5월 2일자 3면



한국일보 5월 2일자 1면

부산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는 세월호 참사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유가족들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그런데 위 신문들은 대다수 신문들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사진을 얼굴 식별이 어렵도록 처리한 것과 달리 원본 그대로 게재했다. 사진을 본 지인들이라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쉽게 식별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황상 당사자들로부터 사진 촬영 및 게재를 동의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사진들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언론은 자극적 영상이나 무분별한 사진, 선정적 어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기자협회의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위 사진들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신분을 노출시킴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228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영승

〈주문〉

경향신문 2014년 8월 7일자 3면 「사고부대 찾은 국방위원 ‘파이팅’ 논란」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062229555>

경향신문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현장조사를 위해 사건이 발생한 28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기념 촬영한 사진을 사진 기사로 보도했다.

사진 속 국방위원들은 장병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웃는 모습으로 촬영을 했고, 경향신문은 사진 설명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며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국방위원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한 장병들 중에는 간부는

물론 사병들도 포함돼 있으나 이들이 비판적인 내용으로 보도된 사진 촬영에 자의로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진을 보도한 다른 신문들이 장병들의 얼굴 식별이 어렵도록 사진을 처리한 것과 달리 경향신문은 원본 그대로 게재했다. 사진을 본 지인들이라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쉽게 식별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위 사진은 사건과 무관한 장병들의 신분을 노출시킴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032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5년 1월 12일자 4면 「지켜보고… 지나가고…」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켜보고… 지나가고… 1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가운데 한 시민이 TV 앞을 지나가고 있다. 광○○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1120107040301500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로 생중계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모습을 사진뉴스로 보도했다. 위 사진은 TV 화면 속 대통령은 회견을 하고 있고, 한 시민은 TV 앞을 지나고 있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의 시민을 신문에 게재하면서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다. 위 사진 설명에 미뤄 사진 속의 시민은 사진 촬영에 자의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위 사진은 기자회견과 무관한 시민의 신분을 노출시킴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공인의 사생활 보호

▲ 2014-1262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朝鮮日報 2014년 8월 29일자 A4면 「김영오 주치의〈서울동부병원 이보라 과장〉는 前 통합진보당 대의원」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8일 서울동부병원 3층 기자회견장에서는 보라색 상의에 흰 가운을 걸친 ‘김영오씨 주치의’ 이보라(사진) 내과과장도 마이크 앞에 서 김씨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입원한 병원 3층 VIP실은 이 과장을 빼곤 다른 의료진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세월호가족대책위 관계자는 “김씨가 쓰러졌을 때 광화문 농성장에서 가장 가까운 강북삼성병원으로 가지 않고 굳이 4.8km나 떨어진 서울동부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김씨가 단식하는 동안 건강 상태를 체크해준 이 과장이 있는 병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 등은 “이 과장의 정치색이 세월호 집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단체들과 맞아 김씨가 서울동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과장은 2012년 통합진보당 서울 마포구갑 부위원장에 당선됐던 전(前) 통진당 대의원이다. 이 과장의 페이스북엔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대형 걸개 사진 앞에서 2011년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다. 서울동부병원 김경일 원장도 진보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병원 관계자는 “김 원장이 2011년 부임하고 나서 민노총 간부와 좌파 인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

로 여러 차례 진보 강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병원에는 민주노총 산하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도 민주노총 산하이니 보건의료노조가 있는 병원에 가면 김씨 상태에 대한 보안 유지나 협조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동부병원은 작년 병원 리모델링을 하며 지금 김영오씨가 입원해 있는 VIP 병실을 만들었다. 당시 병원 직원들은 “시립병원에 VIP 병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발했지만 묵살됐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9/2014082900256.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는 위 기사에서 세월호 유족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한 서울동부병원의 주치의 이보라 내과 과장이 전(前) 통합진보당 대의원이라고 보도하고 큰 제목도 같은 내용으로 달았다.

기사는 경찰 등의 발언을 인용해 김 씨가 광화문 농성장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지 않고 굳이 4.8km나 떨어진 서울동부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이 과장의 이런 정치색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이 과장의 통진당 관련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기사는 또 『서울동부병원 김경일 원장도 진보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며 2011년 김 원장 부임 이후 민노총 간부와 좌파 인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진보 강연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인 이 과장의 정치 경력이나 김 원장의 정치적 성향은 두 사람의 일상적인 업무활동과는 무관하고, 더더구나 김 씨의 병원 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왜 이런 정보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300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문〉

스포츠서울 2014년 9월 26·27일자 17면 「‘명량’에서 짝튼 사랑... 이정현-김한민 감독 열애」 제목의 기사, 스포츠동아 10월 1일자 19면 「‘소녀시대’ 탈퇴 제시카, 내년 5월 홍콩서 결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스포츠서울)= 『홍행 감독과 카리스마 배우 커플이 탄생했다.

영화 ‘명량’으로 한국영화 사상 최고기록인 1700만 관객을 동원한 김한민(45)감독이 ‘명량’에 출연해 존재감을 빛낸 배우 겸 가수 이정현(34)과 열애 중이다.

김한민 감독과 이정현의 열애는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 조용히 알려진 사실. 한 영화 관계자는 “김한민 감독과 이정현이 호감을 갖고 이성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먼 미래까지 얘기하기는 이르지만,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예 관계자는 “김한민 감독이 함께 호흡을 맞춰본 이정현의 배우로서의 열정을 높이 샀다. 이정현 역시 김한민 감독에 대한 남다른 존경심이 있더라. 서로 호감이 생길 만하다”라고 귀띔했다.

김한민 감독과 이정현의 핑크빛 만남이 시작된 매개는 역시 ‘명량’이었다. 두 사람은 ‘명량’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을 키웠다.

이정현은 ‘명량’에서 농아 캐릭터인 정씨 여인 역을 맡아 강렬한 존재감으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영화 흥행에 일조했다. 앞서 “김한민 감독이 영화 ‘최종병기 활’을 찍고 있을 때 박찬욱 박찬경 형제 감독의 ‘파란만장’을 보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때 김한민 감독이 ‘정현씨 ‘파란만장’ 잘 봤고, 다음에 꼭 작품 합시다’ 했는데 정말 ‘명량’의 극본을 쓰자마자 바로 연락이 와서 ‘정현씨 같이 한번 해봐요’라고 했다”는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다.

김 감독이 이정현에 대한 애정과 신뢰로 먼저 러브콜을 보냈고 이정현 역시 감독에 대한 신뢰로 흔쾌히 응하면서 ‘명량’을 함께 했고 호감이 애정으로 꽃피게 됐다.

또 다른 영화관계자는 “두 사람이 영화 촬영기간에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됐고, 작업하면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사랑이 짝튼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영화가 잘되면서 함께 홍보를 다니고 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연애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한민 감독과 이정현 측은 “감독과 배우 사이일 뿐”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http://www.sportsseoul.com/?c=v&m=n&i=112578>)

(스포츠동아)= 『여성그룹 소녀시대를 탈퇴한 제시카(정수연·25)가 결혼과 사업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9월30일 가요계와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시카는 꾸준히 결혼 설이 나돌던 ‘공공연한 연인’ 재미동포 금융인 타일러 권(권녕일)과 내년 5월께 결혼한다. 관계자들은 “결혼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 결혼식은 홍콩에서 하고, 미국 뉴욕과 홍콩을 오가며 생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SM)는 이날 제시카의 탈퇴를 확인하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봄 제시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앞으로 한 장의 앨범 활동을 끝으로 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SM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지만, 제시카의 ‘개인적인 사정’은 결혼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일러 권의 도움 속에 8월 ‘블랑’이란 패션브랜드를 론칭하고 자신이 디자

인한 선글라스를 선보인 제시카는 결혼 후 미국 뉴욕에서 패션디자인을 공부할 예정이다. 이미 유학할 뉴욕의 패션스쿨도 알아봐둔 것으로 전해졌다. 제시카는 향후 블랑의 CEO 겸 디자이너로서 사세를 확장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타일러 권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 코리텔 캐피털 파트너스 연례사업부 CEO로 재직 중이다.(후략)』

〈<http://sports.donga.com/3/all/20140930/66849581/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은 영화 ‘명량’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과 출연 여배우 이정현이 열애중이라고, 스포츠동아는 걸그룹 소녀시대를 탈퇴한 제시카(정수연)가 재미동포 금융인 타일러 권(권녕일)과 내년 5월 홍콩에서 결혼한다고 각각 단독 보도했다.

스포츠서울 기사는 익명의 영화 및 연예 관계자들에게 전해 듣고 작성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취재원들의 발언은 『호감을 갖고 이성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로 호감이 생길 만하다』 『사랑이 싹튼 것으로 안다』 등 추측성 발언이 전부다. 그럼에도 기사는 이를 근거로 『김 감독이 이정현에 대한 애정과 신뢰로 먼저 러브콜을 보냈고 이정현 역시 감독에 대한 신뢰로 흔쾌히 응하면서 ‘명량’을 함께 했고 호감이 애정으로 꽃피게 됐다』고 기술했다. 또한 기사 말미에 김한민, 이정현 측이 『감독과 배우 사이일 뿐』이라며 부인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면서도 두 사람이 열애중이라며 기사와 제목에서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당사자인 이정현은 스포츠서울 보도 다음날 SNS를 통해 기사 내용을 부인했으며 이는 다른 언론 매체에도 보도됐다.

스포츠동아 기사도 『가요계와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라는 익명의 취재원들에게 전해 듣고 작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기사는 『관계자들은 “결혼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 결혼식은 홍콩에서 하고, 미국 뉴욕과 홍콩을 오가며 생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며 두 사람의 결혼이 확정된 것

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에서 제시카의 결혼 상대방으로 지목한 타일러 권은 스포츠동아 보도 이후 SNS를 통해 결혼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다른 언론 매체에도 같은 내용이 보도됐다.

연예인들의 열애나 결혼 기사는 자칫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는 당사자에게 확인하지도 않거나 당사자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인된 사실인 양 보도했다. 또 당사자들이 부인한 후에도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369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東亞日報 2014년 12월 8일자 A4면 「박지만 연락끊고 잠행… 부인, 셋째 임신한듯」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은 ‘정윤희 동향’ 문건 파문이 불거진 이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철저히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박 회장은 누나인 박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이번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은 보고 있다. 친박계 인사는 7일 “대통령이 친인척들에 대해 얼마나 혹독하게 단속을 해왔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는 최근 셋째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박 회장 부부가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안다. 축하할 일인데 상황이 이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박 회장의 첫째 아들인 세현 군(9)에 대해 ‘보물 1호’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할 만큼 조카 사랑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설 연휴 둘째 조카가 태어난 이후 박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마치고 지만 씨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donga.com/3/all/20141208/68404622/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는 청와대 비선 실세 문건 파문의 주요 인물인 박지만 EG 회장의 동향을 전하는 위 기사에서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박 회장 부부가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안다』는 여권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가 최근 셋째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박 회장 첫째 아들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까지 밝혔다.

그러나 박 회장 부인의 임신 여부나 첫째 아들의 신상정보는 문건 파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로, 어디까지나 박 회장 부부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